

반지성주의 시대, 밈(meme)과 소설의 운명: 커먼즈와 자본주의 시스템의 관계를 중심으로 이소영(KAIST)

1. 반지성주의와 커먼즈

- 오늘날 반지성주의는 우파 청년들의 전략이자 스타일
- 반지성주의란 “지성의 역량”을 부정하는 것
- 도나 해러웨이에 의하면 “응답-능력의 부재”
ex. 아돌프 아이히만
→세계를 돌봄의 문제로 사유할 수 없었기 때문에
집단 학살에 가담한 것
- 반지성주의는 자기 이외의 세계에 대한 무감각으로
토지, 물, 숲, 지식 체계, 돌봄 역량을 포함한
공유된 자연적 혹은 사회적 부로서의 커먼즈를
인식할 수 없음
- 또한 “공유 자체와 그 과정에서 파생되는 연대의 끈”인
사회적 관계로서의 커머닝을 사유할 수 없음

∴ 커먼즈가 투쟁해야 할 대상은 반지성주의



3. 커먼즈와 상품 사이, 소설의 운명

- <밈 전쟁: 개구리 페페 구하기>(2020)는
말미에서 홍콩 민주화의 상징으로 거듭난
페페의 모습을 보여줌
- 원작자도 성공하지 못했던 밈의 재의미화가
커머닝을 통해 가능함
→자본의 역사 이래로 상품과 커먼즈는
공존해왔으며, 어떤 사물이 상품이 될지
커먼즈가 될지는 사회적 맥락 속에서 규정됨
커먼즈는 언제나 투쟁의 산물인 것
- 상품이자 커먼즈로서 ‘소설’을 제시한 장정일
- 우익청년 탄생기로서 『구월의 이틀』(2009)은
자본주의 시스템 내에서 반지성주의 극복이
어떻게 가능할지를 성찰해보는 동시에
커먼즈로서 소설의 운명을 탐구함

2. 커먼즈와 상품 사이, 밈(meme)의 운명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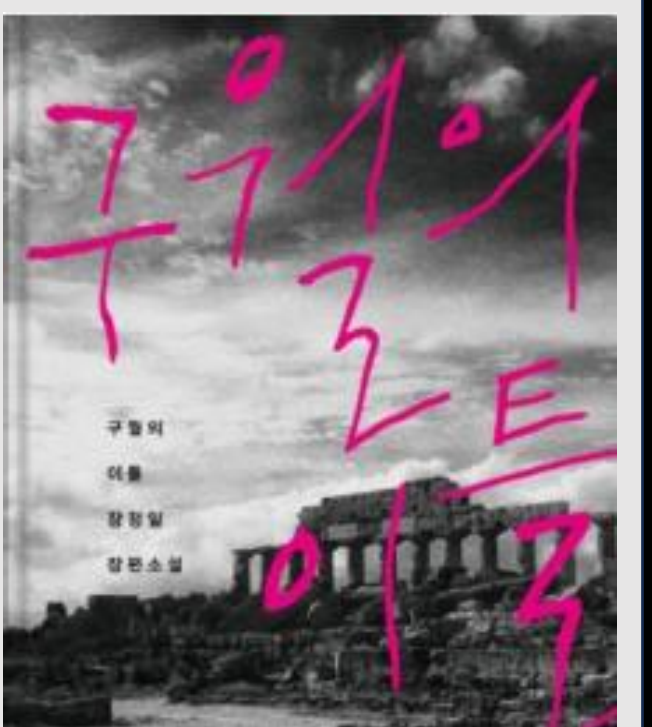
- 그러나 <밈 전쟁: 개구리 페페 구하기>(2020)는
우파의 반지성주의를 드러내는 상징으로서
문화 커먼즈가 이용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줌
- 원작자 푸리는 페페를 평화의 상징물로
전환시키려는 페페 구명 운동을 펼치지만 실패함
- 페페는 수많은 짝들과의 경쟁 속에서 살아남은
밈으로서 탄생부터 자본주의 시스템의 적자생존,
즉 진화의 논리를 벗어날 수 없는 운명이었던 것
- 결국 푸리는 오염된 페페를 상품화하려는 엘릭스
존스에 맞서 저작권(copyright)을 주장하는
방식으로, 커먼즈로서 페페의 죽음을 선고하는
방법으로 페페를 되찾고자 함
- 커먼즈는 자본주의 시스템이라는 근본적 한계
내에서 반지성주의라는 시대적 경향에 맞서야
하는 이중의 과제를 짊어지고 있는 것



<밈 전쟁> 예고편

4. 다시 고향으로: 커머닝으로서 소설 쓰기

- ‘은’의 ‘일기’는 ‘동성애자’로서 자신이 지닌 취약성을
바탕으로 돌봄, 연대 등 커먼즈의 가치를 행하지 못함
∴ 문학은 “커먼즈에 의한 커먼즈의 생산” 이상이어야 함
즉 ‘같이하기/공유하기/행동하기/평등’으로서의
‘커머닝(commoning)’이 중요함
- ‘금’이 트럭 운전 기사에게 소설 쓰기를 권유하는 것도 커머닝
- ‘금’은 “공적 가치의 수호자”로서 ‘국민작가’가 되겠다는 결심으로
고향으로 향하는데, 고향은 아버지가 “풀뿌리 지역 운동”에
종사하던 곳
- ‘금’의 선택에 대해 서술자는 회의적이거나, ‘금’은 ‘은’이 제안한
소설 쓰기의 방법이 ‘커먼즈에 의한 커먼즈의 생산’ 수준임을 간파,
문학공동체에 긴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작가가 되고자 함
- ‘금’과 ‘은’은 자본주의 시스템에 침윤되어 있지만,
반지성주의와 문학이 함께할 수 없다는 점이 줄곧 강조되었음을
생각해보면, 소설은 적어도 반지성주의에 대한
상대역(counterpart)의 지위를 부여받음



참고 자료